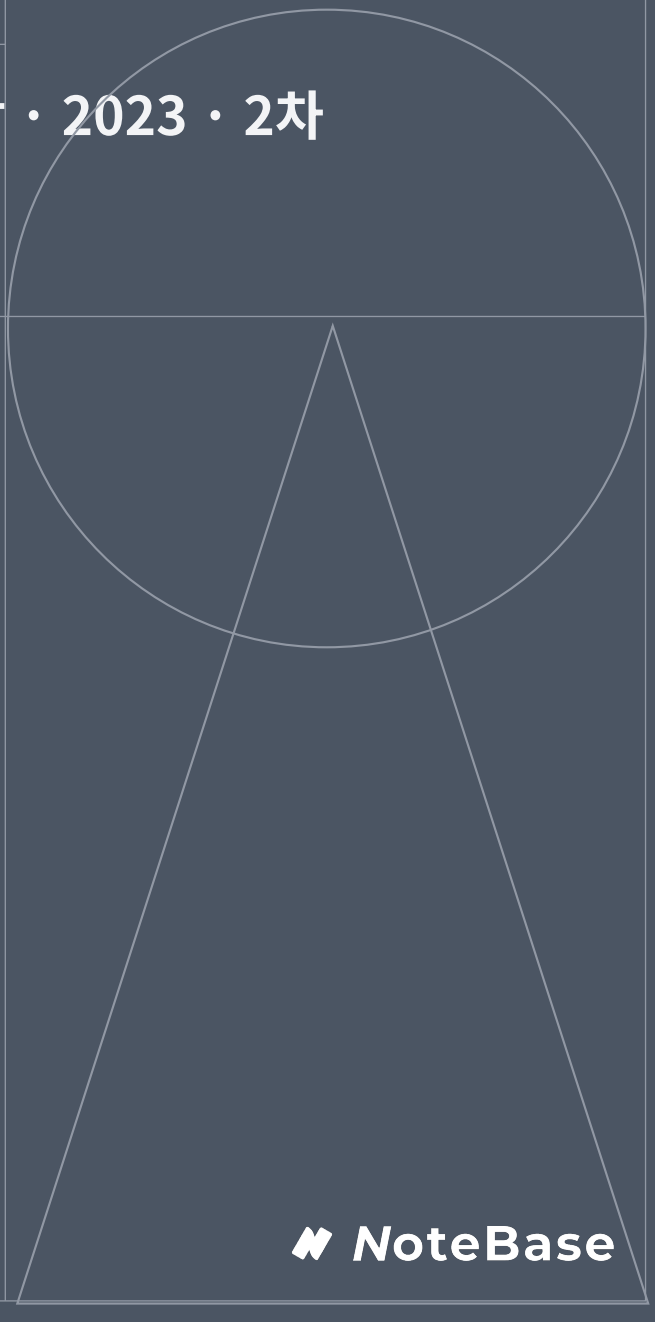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3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3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3 · 2차

문 1.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할로우(Harlow)의 원숭이 실험은 애착을 형성하는 데에 음식물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② 로렌츠(Lorenz)의 새끼 오리 연구는 결정적 시기에 이루어진 각인에 의한 애착을 보여 주었다.

③ 볼비(Bowlby)는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행동체계가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수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④ 에인스워스(Ainsworth)의 실험에서 안정애착의 유아는 어머니가 자신과 함께 있든 떠나든 관계없이 새로운 환경을 편안해하며 그곳을 탐색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애착 연구의 대표 학자와 각 이론·실험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할로우: 접촉 위안 - 애착은 단순한 먹이 제공보다 부드러운 접촉과 편안함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로렌츠: 각인 - 결정적 시기에 처음 접한 대상에게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애착이 형성된다.
볼비: 내적 작동모형 - 초기 애착경험은 이후 대인관계를 이해하고 기대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틀을 만든다.
에인스워스: 낯선 상황 실험 - 안정애착 유아는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삼아 탐색하고, 분리 시 불안을 보이며, 재회 시 쉽게 안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음식물 제공이 중요하다"이다.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은 철사 어미가 젖을 주더라도 새끼 원숭이가 천 어미에 더 오래 매달린다는 점을 통해 접촉 위안이 애착 형성에 더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올바르게는 "접촉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애착 형성에 중요하다"이다.
② O. 로렌츠의 새끼 오리 연구는 부화 직후의 결정적 시기에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따라다니는 각인을 보여 준 연구이다. 각인은 매우 이른 시기의 애착 형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선지의 설명이 옳다.
③ X. 틀린 표현은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수정된다"이다. 볼비는 어린 시절의 애착경험이 애착행동체계와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하여 이후 관계에 비교적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올바르게는 "초기 애착은 이후 대인관계의 기본 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된다"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어머니가 자신과 함께 있든 떠나는 관계없이"이다. 에인스워스의 안정애착 유아는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는 안전기지로 삼아 환경을 탐색하지만, 어머니가 떠나면 불안을 보이고 재회하면 다시 안정된다. 올바르게는 "양육자가 있을 때 편안하게 탐색하고 분리되면 불안해하며 재회 시 쉽게 진정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애착을 먹이 제공으로 설명하는 고전적 오해를 노린 선지이다. ③은 볼비의 초기 애착의 지속성을 "나중에 수정된다"로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④는 안정애착을 분리 상황에서도 무감각한 상태처럼 바꾸어 놓았는데, 안정애착은 무반응이 아니라 분리 불안과 재회 후 회복이 특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애착 문제는 학자 이름을 보면 바로 대표 개념을 연결해 판단한다. 할로우는 접촉 위안, 로렌츠는 각인, 볼비는 내적 작동모형,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과 안전기지로 정리하면 선지의 O/X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할로우=접촉 위안, 로렌츠=각인, 볼비=내적 작동모형, 에인스워스=안전기지로 묶어 둔다.

NoteBase

문 2. 다음 사례에서 사용된 스키너(Skinner)의 강화계획은?

A는 새롭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후 이용자들의 방문 횟수를 늘리고자 하였다. 이에 매일 정오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와 출석체크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제공하였다.

① 고정간격(fixed interval)
② 변동간격(variable interval)
③ 고정비율(fixed ratio)
④ 변동비율(variable ratio)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강화가 반응 횟수에 따라 주어지는지, 일정한 시간 간격이 지난 뒤 주어지는지를 사례에 적용해 구분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은 보상이 매일 정오라는 일정한 시점에 주어진다는 점이다.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은 앱에 들어와 출석체크를 하는 것이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은 보상 기준이 방문 횟수가 아니라 시간 간격이라는 점이다.

핵심 개념

고정간격 강화계획은 일정한 시간 간격이 지난 뒤 처음 나타난 반응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적용 요건은 강화가 예측 가능한 고정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강화가 매일 정오라는 고정된 시간 간격 뒤에 제공된다. 핵심은 보상이 몇 번 방문했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되었는지에 따라 주어진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매일 정오라는 일정한 시간 간격 뒤에 출석체크 반응을 하면 토큰이 주어지므로 고정간격 강화계획에 해당한다.
② X: 변동간격은 강화가 불규칙한 시간 간격 뒤에 주어지는 방식이다. 이 선지의 틀린 표현은 '변동'이며, 올바르게는 매일 같은 시각에 주어지므로 '고정간격'이다.
③ X: 고정비율은 일정한 반응 횟수마다 강화가 주어지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방문 5회마다 보상처럼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틀린 표현은 '비율'이며 올바르게는 '간격'이다.
④ X: 변동비율은 강화가 예측할 수 없는 반응 횟수 뒤에 주어지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반응 횟수도 아니고 변동도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고정된 시간 간격 후 강화'이다.

오답 포인트

출석체크를 한다는 행동 자체에 주목하면 비율 강화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매일 정오'라는 시간 기준이며, 반응 수가 아니라 시간 간격이 강화 조건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강화계획 문제는 먼저 보상이 시간 뒤에 주어지는지, 반응 횟수 뒤에 주어지는지를 구분한다. 그다음 그 기준이 일정하면 고정, 불규칙하면 변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간 기준이면 간격, 횟수 기준이면 비율이며, 매일 같은 시각이면 고정간격이다.

NoteBase

문 3. 기억 및 정보인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특정한 경험을 장기간 기억하는 것은 일화적 기억에 해당한다.

② 집중적인 공부나 연습보다 분산된 공부나 연습이 더 우수한 장기 파지(retention)를 가능하게 한다.

③ 최근에 새롭게 기억 속에 저장한 전화번호를 이전에 저장했던 전화번호 때문에 잘 회상하지 못하는 것은 순행 간섭이다.

④ 기억해야 할 단어목록 중 첫 부분에 대한 회상이 우수한 것은 최신효과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억 체계, 간섭, 분산연습, 계열위치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화적 기억은 개인이 겪은 사건과 경험에 대한 장기기억이다.
분산연습은 학습을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하는 방식으로, 집중연습보다 장기 파지에 유리하다.
순행 간섭은 먼저 학습한 정보가 나중에 학습한 정보의 기억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초두효과는 목록의 앞부분이 잘 기억되는 현상이고, 최신효과는 목록의 끝부분이 잘 기억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개인의 특정한 경험을 장기간 기억하는 것은 일화적 기억에 해당한다. 일화적 기억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같은 자전적 사건 기억이 핵심이다.

② O
분산된 공부나 연습이 집중적인 공부나 연습보다 장기 파지를 높인다는 설명은 맞다.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부호화와 인출이 더 안정되어 오래 기억된다.

③ O
최근에 저장한 전화번호를 이전 전화번호 때문에 잘 회상하지 못하는 것은 순행 간섭이다. 먼저 학습한 옛 전화번호가 나중에 학습한 새 전화번호의 인출을 방해하므로 설명이 정확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첫 부분에 대한 회상이 우수한 것은 최신효과'라는 표현이다. 목록의 첫 부분이 잘 기억되는 것은 초두효과이고, 최신효과는 목록의 마지막 부분이 잘 기억되는 현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초두효과와 최신효과를 모두 '계열위치효과'의 하위 개념으로만 외우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뒤바꾸기 쉽다. ④는 바로 이 위치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억 문제에서는 먼저 개념의 기준축을 잡으면 된다. 경험 사건이면 일화적 기억, 먼저 배운 것이 나중 것을 막으면 순행 간섭, 목록의 앞이면 초두효과, 뒤면 최신효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앞은 초두, 뒤는 최신, 옛것이 새것을 막으면 순행 간섭이다.

NoteBase

문 4. 동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자신의 판단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동조가 일어날 수 없다.

③ 타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다른 견해를 표명하면 동조량은 감소한다.

④ 사람들이 동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행동이 현실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조가 발생하는 이유와 감소 조건, 그리고 소수 영향의 가능성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동조는 집단의 압력이나 정보에 따라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을 다수에 맞추는 현상이다.
규범적 영향은 거절되거나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 다수에 맞추는 것이고, 정보적 영향은 타인의 행동을 현실 판단의 단서로 삼는 것이다.
소수 영향은 일관되고 확신 있는 소수가 다수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소수도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관된 소수의 주장은 다수의 재검토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면 틀린다.
2번: X. 틀린 부분은 "동조가 일어날 수 없다"이다. 실제로는 자신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도 규범적 압력이 있으면 동조가 나타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자신의 판단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동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이다.
3번: O. 만장일치가 깨지면 집단 압력이 약해지므로 한 명의 이탈자만 있어도 동조는 감소한다.
4번: O. 타인의 행동이 현실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동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정보적 영향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판단이 명확하면 동조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동조가 불가능하다는 말로 과장한 선지이다. 동조의 감소 조건과 동조의 소멸을 같은 것으로 보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조 문항은 먼저 왜 따르는지부터 나눈다. 관계 유지를 위한 규범적 영향인지, 현실 판단을 위한 정보적 영향인지 구분하고, 만장일치가 깨지면 동조가 줄어드는지와 소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동조는 명확하면 감소하지만 0이 되지 않으며, 만장일치가 깨지면 더 약해지고, 정보가 필요하면 더 강해진다.

NoteBase

문 5. 다음 사례에서 사용된 학습방법은?

A는 친척의 부탁으로 10개월 된 강아지를 맡아 기르게 되었다. A는 이 강아지가 마당에 있는 작은 관목을 뛰어넘도록 교육을 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강아지가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한 다음, 관목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갈 때마다 간식을 제공하였다. 일정 수준 이상 관목에 가까이 가게 되면 더 이상 간식을 주지 않았고, 관목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간식을 제공하였다. 그 이후에는 관목을 제대로 뛰어넘을 때만 간식을 제공하였다.

① 조성(shaping)
② 파블로프식 조건형성(pavlovian conditioning)
③ 2차 조건형성(second-order conditioning)
④ 3차 조건형성(third-order conditioni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목표행동에 점진적으로 가까운 반응을 차례로 강화하는 학습법인 조성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처음에는 강아지가 관목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행동만 해도 간식을 주었다.
핵심 사실 2: 이후에는 단순 접근에는 간식을 주지 않고, 관목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에만 간식을 주었다.
핵심 사실 3: 마지막에는 관목을 제대로 뛰어넘을 때만 간식을 주었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목표행동을 한 번에 요구하지 않고, 목표에 가까운 행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다.

핵심 개념

조성은 최종 목표행동에 이르기까지 그와 점점 가까워지는 연속적 근사반응을 순서대로 강화하는 조작적 조건형성 기법이다.
적용 요건은 목표행동이 아직 바로 나오지 않을 때 중간 단계 행동을 강화하고, 기준을 점차 높여 최종 행동만 남기도록 하는 데 있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강화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동의 수준에 따라 점차 선택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본다. 핵심은 간식을 어떤 자극과 짝지은 것이 아니라, 목표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조성은 목표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조금씩 강화하여 최종행동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사례는 접근 행동 강화 → 뛰어넘으려는 시도 강화 → 제대로 뛰어넘는 행동 강화의 순서로 연속적 근사반응을 강화하므로 조성에 해당한다.

② X
파블로프식 조건형성은 중립자극과 무조건자극의 결합으로 조건반응이 형성되는 고전적 조건형성이다. 이 사례는 특정 자극의 결합이 아니라 행동 뒤에 간식을 주는 강화 절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파블로프식 조건형성"이고, 올바르게는 "행동에 대한 강화를 통해 목표반응을 형성하는 조작적 조건형성의 조성"이다.

③ X
2차 조건형성은 이미 조건형성된 자극을 다시 다른 중립자극과 결합해 새로운 조건자극을 만드는 절차이다. 이 사례에는 조건자극이 연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없고, 행동 수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뿐이다. 틀린 표현은 "2차 조건형성"이고, 올바르게는 "연속적 근사반응을 강화하는 조성"이다.

④ X
3차 조건형성은 2차 조건형성보다 더 확장된 고차 조건형성으로, 조건자극 연쇄가 한 단계 더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례는 고차 조건형성이 아니라 행동수정을 위한 강화계획이다. 틀린 표현은 "3차 조건형성"이고, 올바르게는 "목표행동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조성"이다.

오답 포인트

간식이 등장하므로 조건형성 전반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간식 자체가 아니라 간식을 주는 기준이 단계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자극과 자극의 결합이면 고전적 조건형성이고, 행동에 따라 강화가 달라지며 목표행동에 점점 가깝게 만들면 조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에서 보상이나 처벌이 나오면 먼저 자극의 결합을 묻는지, 행동의 변화를 묻는지 구분한다. 그다음 행동의 변화를 묻는다면 목표행동을 한 번에 강화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행동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는지를 보면 조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성은 정답 행동이 아직 없을 때 비슷한 행동부터 차례로 강화해 최종행동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6. 집단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집단과의 토의를 활성화할수록 집단극화 현상이 더 나타난다.

② 몰개인화가 되면 평소 개인의 가치관과 다른 폭력이나 범죄 등의 집단행위에 동조하게 된다.

③ 집단의 응집성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내집단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외집단에 대해 폐쇄적이게 된다.

④ 사람들이 자전거를 혼자서 탈 때보다 여럿이 탈 때의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사회적 촉진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집단극화, 몰개인화, 집단응집성과 내집단 편향, 사회적 촉진의 핵심 조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집단극화: 비슷한 성향의 구성원들이 집단 내부에서 토의한 뒤 평균 의견이 더 극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키워드는 동질적 집단 내부 토의와 극단화이다.
몰개인화: 익명성과 책임 분산으로 자기통제가 약해져 평소보다 충동적이거나 반규범적인 행동에 휩쓸리기 쉬운 상태이다. 키워드는 익명성, 책임감 분산, 자기통제 약화이다.
집단응집성과 내집단 편향: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이 강할수록 내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외집단에 배타적으로 반응하기 쉬운 경향이다.
사회적 촉진: 타인의 존재가 단순하거나 숙련된 과제 수행을 향상시키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집단극화는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내집단 구성원 사이의 토의를 거친 뒤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틀린 부분은 "외집단과의 토의"이다. 올바르게는 "동질적인 내집단 내부 토의가 활발할수록 집단극화가 더 잘 나타난다"이다.
② O: 몰개인화가 되면 익명성과 책임 분산 때문에 자기통제가 약해져 평소 개인 가치관과 다른 폭력적이거나 범죄적인 집단행동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③ O: 집단의 응집성이 높아지면 집단 동일시가 강해져 내집단을 과대평가하고 외집단에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
④ O: 사회적 촉진은 타인의 존재 때문에 단순하거나 이미 숙달된 과제의 수행이 향상되는 현상이다. 자전거를 혼자 탈 때보다 여럿이 탈 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예는 이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토의를 활성화할수록 극단화된다"는 앞부분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집단극화의 핵심은 아무 토의가 아니라 비슷한 입장의 내집단 내부 토의이다. "외집단"이라는 한 단어를 놓치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단행동 문항은 현상 이름보다 촉발 조건을 먼저 대조하면 판단이 된다. 집단극화는 동질적 내집단 토의, 몰개인화는 익명성과 책임 분산, 사회적 촉진은 타인의 존재와 숙련 과제, 내집단 편향은 높은 응집성과 동일시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집단극화는 같은 편끼리 토의할수록 더 극단으로, 몰개인화는 익명성 때문에 통제 약화, 사회적 촉진은 함께 있을 때 쉬운 과제 수행 향상이다.

NoteBase

문 7. 시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암순응(dark adaptation)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빛에 대한 눈의 민감도가 차츰 향상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② 망막의 수용기 세포 중 하나인 추상체(cones)는 빛이 약한 조건의 시각과 주변지각을 관장한다.

③ 수정체는 물체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초점이 망막 위에 형성되도록 한다.

④ 대립과정이론은 색채 지각이 적-녹, 청-황, 흑-백의 대립쌍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안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암순응, 간상체와 추상체의 기능, 수정체의 역할, 대립과정이론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암순응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빛에 대한 시각 민감도가 점차 높아지는 과정이다.
간상체는 빛이 약한 조건의 시각과 주변시를 담당하고, 추상체는 밝은 곳에서의 색채시와 중심시를 담당한다.
수정체는 들어온 빛의 초점을 망막 위에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대립과정이론은 색채 지각이 적-녹, 청-황, 흑-백의 대립 채널을 통해 처리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암순응의 정의를 바르게 설명한 선지이다. 어두운 환경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민감도가 높아진다.

② X
틀린 부분은 '추상체(cones)는 빛이 약한 조건의 시각과 주변지각을 관장한다'는 표현이다.
빛이 약한 조건의 시각과 주변시는 추상체가 아니라 간상체가 담당한다. 추상체는 밝은 곳에서의 색채 지각과 중심시를 담당한다고 고쳐야 한다.

③ O
수정체는 굴절을 조절하여 물체에서 반사된 빛의 초점이 망막에 맺히도록 한다. 시각 형성에서 수정체의 기본 역할을 옳게 설명한 선지이다.

④ O
대립과정이론은 색채 지각이 적-녹, 청-황, 흑-백의 대립쌍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대표적인 색채 지각 이론의 내용을 정확히 진술한 선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간상체와 추상체의 기능을 서로 바꾸어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약한 빛, 주변시'는 간상체이고 '밝은 빛, 색채, 중심시'는 추상체라는 대응을 혼동하면 ②를 옳다고 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각 문항은 먼저 수용기 기능부터 구분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어두운 곳과 주변시는 간상체, 밝은 곳과 색채 및 중심시는 추상체로 대응시키고, 색채 이론은 삼색설과 대립과정이론의 핵심 짝을 분리해서 본다.

암기 포인트

간상체는 밤과 주변, 추상체는 낮과 색채, 대립과정은 적-녹·청-황·흑-백이다.

NoteBase

문 8. 눈의 망막에서 뇌로 연결되는 시각 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각피질은 후두엽에 위치한다.

② 오른쪽 눈의 우시야는 시신경교차를 통해 좌반구로 전달된다.

③ 대상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후두엽에서 두정엽 쪽으로 전달된다.

④ 왼쪽 눈의 귀쪽 망막에서 출발한 시신경은 시교차(optic chiasm)에서 우반구의 시각피질로 연결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시각 경로에서 비측 망막 섬유와 이측 망막 섬유의 교차 여부, 그리고 위치·움직임 정보를 처리하는 배측 경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측 망막 섬유는 시교차에서 반대쪽으로 교차한다. 키워드는 교차이다.
이측 망막 섬유는 시교차에서 교차하지 않고 같은 쪽 반구로 진행한다. 키워드는 비교차이다.
대상의 위치와 움직임 정보는 후두엽에서 두정엽으로 이어지는 배측 경로에서 주로 처리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각피질은 후두엽에 위치한다. 일차시각피질 V1도 후두엽에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O: 오른쪽 눈의 우시야는 오른쪽 눈의 비측 망막에 맺히고, 비측 망막 섬유는 시교차에서 반대쪽으로 건너간다. 따라서 좌반구로 전달된다는 설명은 옳다.
③ O: 대상의 위치와 움직임 정보는 후두엽에서 두정엽으로 전달되는 배측 경로가 담당한다. 따라서 후두엽에서 두정엽 쪽으로 전달된다는 설명은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시교차에서 우반구의 시각피질로 연결된다"이다. 왼쪽 눈의 귀쪽 망막, 즉 이측 망막에서 나온 섬유는 시교차에서 교차하지 않고 같은 쪽으로 진행한다. 올바르게는 "왼쪽 눈의 귀쪽 망막에서 출발한 시신경은 시교차에서 교차하지 않고 좌반구의 시각피질로 연결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시야의 좌우와 망막의 좌우를 그대로 대응시키면 헷갈리기 쉽다. 시야는 망막에 좌우가 뒤바뀌어 맺히고, 그다음에 비측은 교차하고 이측은 비교차한다는 두 단계를 분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어느 시야가 어느 망막에 맺히는지 반대로 대응시킨다. 그다음 비측 망막이면 시교차에서 반대쪽으로, 이측 망막이면 같은 쪽으로 간다고 판단한다. 위치·움직임이 나오면 후두엽에서 두정엽으로 가는 배측 경로를 연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비측은 교차하고 이측은 비교차하며, 위치·움직임은 후두엽에서 두정엽으로 간다.

NoteBase

문 9. 심리학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능주의(functionalism)의 대표적 학자는 제임스(James)이며, 티치너(Titchener)가 그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다.
ㄴ. 형태주의 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서는 지각되는 대상의 부분적 요소보다는 전체적 패턴이 더 강조된다.
ㄷ.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지와 자율적인 선택 능력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경험보다는 객관적 경험을 중시한다.
ㄹ. 구성주의(structuralism)에서는 자기반성적인 내성법(introspection)을 사용하여 의식의 구성요소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심리학의 주요 학파를 대표 학자와 핵심 주장에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 기능주의: 의식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보다 의식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 형태주의: 지각은 부분의 단순 합이 아니라 전체적 형태와 패턴으로 조직된다고 본다.
- 인본주의: 인간의 자유의지, 자율성, 자기실현,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 구성주의: 내성법을 사용하여 의식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려 한 초기 심리학의 입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 ㄴ의 조합인데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 ㄱ에서 틀린 부분은 "티치너가 그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다"이다. 티치너는 기능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올바르게는 제임스는 기능주의의 대표 학자이고, 티치너는 구성주의와 연결된다.

② X
- ②는 ㄱ, ㄹ의 조합인데 ㄹ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 ㄹ은 구성주의가 자기반성적 내성법을 사용하여 의식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려 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반면 ㄱ은 티치너를 기능주의 계열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기능주의는 제임스 중심의 흐름이고, 티치너는 구성주의 학자이다.

③ X
- ③은 ㄴ, ㄷ의 조합인데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 ㄴ은 형태주의 심리학이 지각된 대상의 부분적 요소보다 전체적 패턴을 더 중시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 ㄷ에서 틀린 부분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보다는 객관적 경험을 중시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며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자기실현을 중시한다.

④ O
- ④는 ㄴ, ㄹ의 조합이며 두 진술이 모두 옳아서 정답이다.
- ㄴ은 형태주의의 핵심인 전체성 강조를 말하고, ㄹ은 구성주의의 핵심 방법인 내성법을 말한다.

오답 포인트

제임스가 기능주의라는 점만 기억하고 티치너까지 같은 흐름으로 묶으면 ㄱ을 맞는 문장처럼 보기 쉽다. 또 인본주의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보고 객관주의와 연결하면 ㄷ에 속기 쉽다. 인본주의는 오히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파 문제는 학자 이름만 외우지 말고 각 학파가 무엇을 중시하는지로 먼저 자른다. 기능주의는 기능, 형태주의는 전체 패턴, 인본주의는 주관적 경험과 자기실현, 구성주의는 내성법과 의식 요소로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제임스=기능주의, 게슈탈트=전체, 인본주의=주관·자기실현, 티치너=구성주의·내성법이다.

NoteBase

문 10. 특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올포트(Allport)는 성격의 공통특질(common traits)은 실재하는 것으로서 주특질(cardinal traits), 중심특질(central traits), 이차적 특질(secondary traits)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ㄴ. 카텔(Cattell)은 요인분석을 통해 16개의 근원특질(source traits)을 추출했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인 16PF(16 Personality Factor)를 개발하였다.
ㄷ. 아이젱크(Eysenck)는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외·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 신경증성향(neuroticism), 정신병성향(psychoticism)의 세 가지 초요인(superfactors)을 확인하였다.
ㄹ. 매크리와 코스타(McCrae & Costa)는 외향성(extraversion), 성실성(conscientiousness), 개방성(openness), 호의성(agreeableness)의 네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NEO-PI-R(NEO Personality Inventory-Revised)를 개발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질이론 학자별 핵심 개념과 검사 도구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올포트: 공통특질과 개인특질을 구분한 학자이며, 주특질·중심특질·이차적 특질은 개인 안에서 드러나는 개인특질의 분류이다.
카텔: 요인분석을 통해 16개의 근원특질을 추출하고 이를 측정하는 16PF를 개발한 학자이다.
아이젱크: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성향, 정신병성향의 세 초요인으로 성격을 설명한 학자이다.
맥크레이와 코스타: 성격의 5요인 모형을 정교화하고 NEO-PI-R로 신경증성향, 외향성, 개방성, 호의성, 성실성의 다섯 요인을 측정한 학자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①은 정답이 아니다. ㄱ의 틀린 부분은 공통특질을 주특질·중심특질·이차적 특질로 나누었다는 표현이다. 올포트에서 이 세 범주는 공통특질이 아니라 개인특질의 분류이다. ㄴ은 카텔이 요인분석으로 16개 근원특질을 추출하고 16PF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옳다.

② O
ㄴ과 ㄷ이 모두 옳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ㄴ은 카텔의 16개 근원특질과 16PF를 정확히 연결하였다. ㄷ도 아이젱크가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성향, 정신병성향의 세 초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옳다.

③ X
ㄴ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③은 정답이 아니다. ㄹ의 틀린 부분은 NEO-PI-R이 네 요인을 측정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맥크레이와 코스타의 NEO-PI-R은 신경증성향을 포함한 다섯 요인을 측정한다.

④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④는 정답이 아니다. ㄹ의 틀린 부분은 외향성·성실성·개방성·호의성의 네 요인만 제시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여기에 신경증성향이 추가되어 5요인 모형을 이룬다.

오답 포인트

올포트의 공통특질과 개인특질을 뒤섞거나, 맥크레이와 코스타의 5요인 모형에서 신경증성향 한 축을 빠뜨리면 오답이 된다. 특히 ㄱ은 용어가 모두 올포트 이론 안의 실제 개념이라 그럴듯하지만 분류 대상이 공통특질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질이론 문제는 학자 이름을 보면 먼저 대표 연결고리를 확인하면 된다. 올포트는 공통특질 대 개인특질 구분, 카텔은 16개 근원특질과 16PF, 아이젱크는 3초요인, 맥크레이와 코스타는 5요인 모형으로 판단하면 빠르게 정답을 가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올포트는 개인특질 3분류, 카텔은 16PF, 아이젱크는 PEN 3요인, 맥크레이·코스타는 Big Five이다.

NoteBase

문 11.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세틸콜린은 학습 및 기억, 근육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② 도파민 과잉 공급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의 음성증상과 관련되어 있다.

③ 세로토닌은 정서, 섭식, 수면과 관련되어 있다.

④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분을 돋우는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적 신경전달물질의 기능과 조현병의 증상 유형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아세틸콜린은 학습, 기억, 근육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도파민은 보상, 동기, 운동 조절에 관여하며 과잉 활성은 조현병의 양성증상과 더 관련된다.
세로토닌은 정서, 식욕, 수면 조절과 관련된다.
엔도르핀은 내인성 진통물질로 통증을 완화하고 쾌감이나 안도감을 높이는 데 관여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근 접합부에서 근육 운동에도 관여하므로 선지의 연결이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음성증상"이다. 도파민 과잉 공급은 일반적으로 조현병의 양성증상과 더 관련된다.
올바르게는 "도파민 과잉 공급은 조현병의 양성증상과 관련되어 있다"이다.
3번: O. 세로토닌은 기분과 정서 안정, 식욕, 수면 조절과 관련되는 대표적 신경전달물질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4번: O. 엔도르핀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진통 관련 물질로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와 관련되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조현병의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을 뒤바꾸면 틀리기 쉽다. 2번은 도파민 과잉이라는 익숙한 단서까지는 맞지만, 이를 음성증상에 연결한 한 단어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경전달물질 문제는 각 물질의 대표 기능을 먼저 묶고, 질환이 나오면 어떤 증상군과 연결되는지를 따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조현병은 도파민 과잉을 양성증상과 연결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운동, 세로토닌은 정서와 수면, 엔도르핀은 진통, 도파민 과잉은 조현병 양성증상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성격장애 유형은?

25세인 G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고 둔마한 감정반응을 보인다. G는 가족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도 무관심하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무관심하다.

① 분열성(schizoid) 성격장애
② 분열형(schizotypal) 성격장애
③ 회피성(avoidant) 성격장애
④ 강박성(obsessive-compulsive) 성격장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인관계에 대한 전반적 거리두기와 둔마한 정서반응이라는 사례 단서를 근거로 성격장애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이 없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회피한다는 점이다.
또한 둔마한 감정반응을 보이고 친밀한 관계와 타인의 칭찬·비난에도 무관심하다.
판단의 중심 단서는 고립 자체보다 친밀감, 정서표현, 평가에 대한 무관심이다.

핵심 개념

분열성 성격장애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려는 전반적 양상과 제한된 정서표현이 특징인 성격장애이다.
적용 요건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 부족, 혼자 있는 활동 선호, 칭찬과 비난에 대한 무관심, 정서적 냉담 또는 둔마한 정동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관계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본다. 비난이 두려워 피하는지, 기이한 사고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친밀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이 없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사례는 타인의 평가에 무관심하고 정서가 둔마되어 있으므로 분열성 성격장애 기준에 맞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분열성 성격장애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무관심, 혼자 있기를 선호함, 제한된 감정표현, 칭찬과 비난에 대한 무관심이 핵심이다. 사례의 모든 단서가 여기에 직접 들어맞는다.
2번 X: 분열형 성격장애라면 관계의 어려움과 함께 기이한 믿음, 마술적 사고, 지각 이상, 괴이한 언행 같은 인지·지각 왜곡이 나타나야 한다. 이 사례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틀린 표현은 관계 회피만 보고 분열형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기이한 사고와 지각 왜곡이 있을 때 분열형으로 판단한다.
3번 X: 회피성 성격장애는 비난이나 거절에 대한 과민성과 열등감 때문에 관계를 피한다. 그러나 사례의 G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하다. 틀린 표현은 단순한 사회적 회피를 회피성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평가에 민감하고 친밀관계를 원하지만 거절이 두려울 때 회피성 성격장애이다.
4번 X: 강박성 성격장애는 질서정연함, 완벽주의, 통제에 대한 집착이 중심이다. 사례에는 규칙, 완벽주의, 통제 집착이 전혀 없다. 틀린 표현은 고립된 태도를 강박성으로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지나친 완벽주의와 융통성 부족이 있을 때 강박성 성격장애로 본다.

오답 포인트

사회적 관계를 피한다는 겉모습만 보면 2번이나 3번으로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분열형은 기이한 사고와 지각 왜곡이 있어야 하고, 회피성은 비난에 대한 과민성이 있어야 한다.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타인의 평가와 친밀감 자체에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격장애 사례형은 먼저 관계를 피하는 이유를 본다. 기이함이 중심이면 분열형, 거절 공포가 중심이면 회피성, 질서와 통제 집착이 중심이면 강박성, 애초에 친밀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이 없고 정서가 메말라 있으면 분열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분열성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 자체가 약하고 정서표현도 좁은 유형이다.

NoteBase

문 13. 심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뢰도는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② 객관적 검사에 비해 투사적 검사의 신뢰도가 더 높다.

③ 검사의 실시와 채점 및 해석이 표준화되어 있는 대표적 검사로 주제통각검사(TAT)가 있다.

④ 준거타당도(criterion validity)에는 예언타당도(predictive validity)와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포함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심리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객관검사와 투사검사의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뢰도는 검사가 측정값을 얼마나 일관되게 산출하는가를 뜻한다.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려는 것을 실제로 제대로 측정하는가를 뜻한다.
객관검사는 실시·채점·해석의 표준화 수준이 높아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
투사검사는 반응이 개방적이어서 해석자의 영향이 커지고 표준화와 신뢰도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준거타당도는 검사 결과를 외부 준거와 비교하는 타당도로, 예언타당도와 공인타당도가 포함된다.
구성타당도는 검사가 이론적 구성개념을 잘 측정하는가를 보는 별도의 타당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 측정하거나 문항들 사이를 비교할 때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나오는가를 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투사적 검사의 신뢰도가 더 높다"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검사가 문항 형식과 채점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다.

③ X
틀린 부분은 "TAT가 실시와 채점 및 해석이 표준화되어 있는 대표적 검사"이다.
실제로는 TAT는 대표적인 투사검사로서 반응 해석의 주관성이 커서 객관검사처럼 채점과 해석이 높게 표준화된 검사로 보기 어렵다.

④ X
틀린 부분은 "준거타당도에는 … 구성타당도가 포함된다"이다.
실제로는 준거타당도에는 예언타당도와 공인타당도가 포함되고, 구성타당도는 별도의 타당도 범주이다.

오답 포인트

신뢰도와 타당도를 서로 바꾸어 기억하거나, 준거타당도의 하위유형에 구성타당도를 섞으면 오답이 된다. 또한 TAT처럼 익숙한 검사명을 보면 표준화된 검사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투사검사는 해석의 주관성이 큰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제대로 재는가"로 먼저 구분한다. 이어서 객관검사는 표준화와 높은 신뢰도, 투사검사는 개방적 반응과 낮은 표준화를 연결하면 된다. 타당도는 준거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별개 축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이다. 준거타당도는 예언·공인, 구성타당도는 별도 범주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개념은?

D는 팀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팀원들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①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② 자기기여편향(self-serving bias)
③ 행위자-관찰자 편향(actor-observer bias)
④ 기본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성공은 자기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타인 탓으로 돌리는 귀인 편향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D는 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해석하였다.
핵심 사실 2: 팀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팀원들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같은 결과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의 방향에 따라 귀인 방향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자기기여편향은 긍정적 결과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같은 내적 요인으로, 부정적 결과는 외적 요인이나 타인 탓으로 돌려 자존감을 지키려는 경향이다.
적용 요건: 성공에는 자기 공로 귀인이 나타나고 실패에는 책임 전가가 나타나야 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결과의 방향에 따라 귀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다. 성공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내적 귀인이 나타나고 실패에서 책임을 팀원에게 돌리므로 자기기여편향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확증편향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찾거나 해석하는 경향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정보 선택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배분하는 귀인 방식이다. 틀린 표현은 편향의 초점을 정보 확인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결과 귀인의 자기보호 편향으로 보아야 한다.
② O: 자기기여편향은 성공은 자신의 능력 덕분, 실패는 외적 요인이나 타인 탓으로 설명하는 경향이다. D는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실패를 팀원들의 능력 부족으로 설명하므로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③ X: 행위자-관찰자 편향은 자신의 행동은 상황 탓으로, 타인의 행동은 성향 탓으로 설명하는 위치 차이의 편향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행위자 대 관찰자 위치 차이보다 성공과 실패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귀인하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신의 실패를 상황 탓으로, 타인의 실패를 성향 탓으로 대비할 때 행위자-관찰자 편향이라고 본다.
④ X: 기본귀인오류는 타인의 행동 원인을 상황보다 성향 같은 내적 요인으로 과도하게 설명하는 경향이다. 사례의 일부만 보면 실패를 팀원 능력 부족으로 본 점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 사례는 성공은 자기 공로로 가져가고 실패는 남에게 돌리는 자기보호 패턴이 중심이다. 올바르게는 타인 행동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상황보다 성향에 과도하게 돌릴 때 기본귀인오류라고 본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가 모두 귀인 오류라서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타인 평가 일반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방향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이 바뀌는지를 묻는다. 실패를 팀원 탓으로 돌린 한 장면만 보면 ④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공을 자기 능력 탓으로 본 부분까지 함께 보면 ②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귀인 문제는 먼저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나누고, 그다음 원인을 자기 내부에 두는지 외부나 타인에게 두는지를 본다. 성공은 내 탓, 실패는 남 탓이면 자기기여편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성공은 내 공, 실패는 남 탓이면 자기기여편향이다.

NoteBase

문 15. 아들러(Adler)의 개인심리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 건강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는 사회적 관심이다.

② 개인은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각기 독특한 생활양식을 발전시킨다.

③ 개인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내용의 개인무의식은 사회적 성격 형성의 원천이 된다.

④ 개인의 자기 완성 및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열등감의 극복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사회적 관심, 생활양식,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를 다른 학파 개념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아들러는 인간을 과거 원인에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본다.
사회적 관심은 정신 건강의 중요한 기준이며, 각 개인은 삶의 목표를 향해 고유한 생활양식을 형성한다.
열등감은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건설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1번: O.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을 정신 건강의 핵심 지표로 보았다. 공동체 감각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건강한 성격으로 본다.
2번: O. 아들러는 개인이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며, 그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이 생활양식으로 굳어진다고 보았다. 생활양식은 각 개인의 독특한 삶의 패턴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개인무의식'이 성격 형성의 원천이라는 표현이다. 개인무의식은 융의 개념이며, 아들러는 성격을 과거 경험에서 나온 무의식보다 열등감의 보상, 우월성 추구, 생활양식, 사회적 관심으로 설명한다.
4번: O. 아들러는 열등감을 인간 보편의 출발점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고 보상하려는 노력이 성장과 자기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성격 형성의 근거를 '개인무의식'으로 돌려 아들러와 융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아들러는 무의식의 층위보다 목표 지향성, 생활양식, 사회적 관심을 더 핵심적으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사회적 관심, 생활양식, 열등감 극복, 우월성 추구가 나오면 아들러로 판단한다. 반대로 개인무의식이나 집단무의식이 나오면 융의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아들러 = 사회적 관심·생활양식·열등감 극복, 융 = 개인무의식·집단무의식이다.

NoteBase

문 16. (가), (나)와 관련된 휴리스틱 처리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A는 지적이고 세련되며 정장을 자주 입는다. A가 변호사인지 엔지니어인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변호사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 상점에서 가격을 흥정할 때 상점 주인과 손님 중 어느 한쪽이 먼저 기준가격을 제시하면 그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조정하여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ㄱ.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ㄴ.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ㄷ. 닻내림 휴리스틱(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

① (가): ㄱ, (나): ㄴ
② (가): ㄱ, (나): ㄷ
③ (가): ㄴ, (나): ㄷ
④ (가): ㄷ, (나): 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례의 판단 방식이 가용성 휴리스틱, 대표성 휴리스틱, 닻내림 휴리스틱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용성 휴리스틱은 어떤 사건이나 사례가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지를 근거로 빈도나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어떤 대상이 전형적 이미지나 고정관념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근거로 범주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닻내림 휴리스틱은 처음 제시된 수치나 기준점에 판단이 묶여 그 주변에서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지적이고 세련되며 정장을 자주 입는다는 전형적 이미지 때문에 변호사라고 판단하므로 대표성 휴리스틱이다. 틀린 표현은 '(가)=가용성 휴리스틱'이며, 올바르게는 '(가)=대표성 휴리스틱'이다.
(나)는 먼저 제시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최종 가격이 정해지므로 닻내림 휴리스틱이다. 틀린 표현은 '(나)=대표성 휴리스틱'이며, 올바르게는 '(나)=닻내림 휴리스틱'이다.

② X
(가)를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본 점이 틀리다. 이 사례는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사례의 빈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전형성과 외적 인상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고 판단한 경우이므로 대표성 휴리스틱이다.
(나)=닻내림 휴리스틱은 맞지만, (가)가 틀려서 오답이다.

③ O
(가)는 대표성 휴리스틱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전형적 이미지와 A의 인상 정보가 비슷하다고 보고 범주를 판단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나)는 닻내림 휴리스틱이다. 먼저 제시된 기준가격이 닻 역할을 하여 그 수치를 중심으로만 조정한 뒤 최종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④ X
(가)를 닻내림 휴리스틱으로 본 점이 틀리다. (가)에는 처음 제시된 수치나 기준점이 없고, 전형성에 따른 범주 판단만 있다. 올바르게는 '(가)=대표성 휴리스틱'이다.
(나)를 대표성 휴리스틱으로 본 점도 틀리다. (나)는 상품 가격이 어떤 전형과 닮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제시 가격에 끌려가는 현상이므로 올바르게는 '(나)=닻내림 휴리스틱'이다.

오답 포인트

(가)처럼 사람의 인상과 직업을 연결하면 가용성과 대표성을 자주 혼동한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은 '잘 떠오르는가'가 아니라 '전형적 이미지와 닮았는가'이다. (나)는 협상 장면이라는 겉모습보다 '먼저 제시된 기준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닻내림을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가 기억의 용이성을 근거로 판단하면 가용성, 전형적 이미지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판단하면 대표성, 처음 제시된 수치나 기준점에 판단이 묶이면 닻내림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잘 떠오르면 가용성, 닮았으면 대표성, 처음 숫자에 묶이면 닻내림이다.

NoteBase

문 17. 라이언(Ryan)과 데시(Deci)의 자기결정이론에 제시된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도성(initiative):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
② 유능성(competence):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이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
③ 자율성(autonomy): 자신의 행동을 시작하고 조절할 때 자기지시와 개인적 승인을 경험하려는 심리적 욕구
④ 관계성(relatedness):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정서적 결속과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Ryan과 Deci의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정확한 명칭과 의미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율성: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한다고 느끼는 욕구이며, 핵심 키워드는 자기결정이다.
유능성: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욕구이며, 핵심 키워드는 효과성이다.
관계성: 타인과 연결되고 소속감과 애착을 느끼는 욕구이며, 핵심 키워드는 정서적 유대이다.
주도성: 자기결정성이론의 기본심리욕구 공식 명칭에는 포함되지 않는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기결정성이론의 기본심리욕구 명칭은 주도성이 아니라 자율성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려는 설명은 자율성의 취지와 가깝지만, 기본심리욕구의 공식 범주에 initiative는 들어가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주도성(initiative)'이며, 올바르게는 '자율성(autonomy)'이다.
② O: 유능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고 느끼려는 욕구이다. competence를 유능성으로 제시한 점이 기본심리욕구의 내용과 맞다.
③ O: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시작하고 조절할 때 자기지시와 개인적 승인감을 경험하려는 욕구이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한다는 설명이 자율성의 핵심과 부합한다.
④ O: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친밀감과 애착을 형성하려는 욕구이다. 친밀한 정서적 결속과 애착 형성을 말하므로 관계성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자율성과 주도성은 모두 스스로 한다는 느낌을 주어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설명의 대략적 의미보다 이론의 공식 명칭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기 때문에, 용어가 '주도성'으로 바뀌는 순간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결정성이론의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로만 고정해 두고 판단한다. 선지가 스스로 선택함을 말하면 자율성, 효과적으로 해냄을 말하면 유능성, 정서적 연결을 말하면 관계성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결정성이론의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유능성-관계성의 3요인이다. 스스로 한다는 설명의 공식 용어도 주도성이 아니라 자율성이다.

NoteBase

문 18. 심리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작적 정의의 정확한 기술은 연구자 누구나 해당 연구를 반복(replicate)할 수 있게 한다.

② 무선표집(random sampling)은 모집단(population)의 모든 구성원이 표본으로 선발될 확률이 동일한 상태에서 표집하는 것이다.

③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ward the mean) 현상은 극단적이거나 특이한 특성의 피험자가 평균 특성의 피험자보다 수행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학업 성취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설계된 연구에서는 자존감 척도를 통해 측정된 자존감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작적 정의, 무선표집, 평균으로의 회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작적 정의는 연구에서 변인을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고 조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현 가능하게 만드는 정의이다.
무선표집은 모집단의 각 구성원이 표본으로 뽑힐 기회를 동등하게 갖도록 표집하는 방식이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극단적 점수가 다음 측정에서는 평균에 더 가까운 점수로 돌아오는 경향을 뜻한다.
독립변인은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 종속변인은 그 영향을 받아 측정되는 결과 변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조작적 정의를 정확히 기술하면 다른 연구자도 같은 절차와 기준으로 연구를 반복할 수 있다. 재현 가능성은 조작적 정의의 핵심 기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O
무선표집은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본으로 선발될 확률을 동등하게 갖도록 뽑는 방식이다. 표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극단적이거나 특이한 특성의 피험자가 평균 특성의 피험자보다 수행을 잘한다"는 표현이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수행 우열을 뜻하지 않고, 처음에 매우 높거나 매우 낮았던 점수가 다시 측정될 때 평균에 가까워지는 통계적 경향을 뜻한다. 극단집단이 평균집단보다 잘한다는 의미로 바꾸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O
학업 성취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는 연구라면 학업 성취가 독립변인이고 자존감 점수가 결과로 측정되는 종속변인이다. 따라서 자존감 척도로 측정된 자존감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평균으로의 회귀"를 능력 차이 설명처럼 바꿔 놓은 함정이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극단 점수의 재측정 변화에 관한 말이지, 극단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잘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방법 문항에서는 먼저 용어의 한 줄 정의를 떠올리면 판단이 빨라진다. 조작적 정의는 재현 가능성, 무선표집은 동일한 선발 기회, 평균으로의 회귀는 극단 점수의 평균 접근, 종속변인은 결과 측정값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평균으로의 회귀는 극단 점수의 평균 접근이지 수행 우열의 의미가 아니다.

NoteBase

문 19. 피아제(Piaget)의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발달적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연 모방
ㄴ. 물활론적 사고
ㄷ. 가상놀이
ㄹ. 대상영속성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아제의 전조작기 특징과 감각운동기 말에 획득되는 능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조작기는 상징 기능이 활발해져 언어 사용, 가상놀이, 물활론적 사고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감각운동기 말에는 대상영속성과 지연 모방이 확립되어 눈앞에 없더라도 대상과 행동을 표상할 수 있게 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ㄴ의 물활론적 사고는 전조작기 특징이 맞지만, ㄱ의 지연 모방은 보통 감각운동기 6단계의 성취로 분류된다. 틀린 표현은 '지연 모방을 전조작기 특징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지연 모방은 감각운동기 말의 성취이다'이다.
2번 O: ㄴ의 물활론적 사고와 ㄷ의 가상놀이는 모두 전조작기에서 두드러진다. 사물에 생명과 의도를 부여하는 사고와 상징을 활용한 놀이가 전조작기의 대표 특징이다.
3번 X: ㄷ의 가상놀이는 전조작기 특징이지만, ㄹ의 대상영속성은 감각운동기에서 형성된다. 틀린 표현은 '대상영속성을 전조작기 특징에 포함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대상영속성은 감각운동기 성취이다'이다.
4번 X: ㄴ과 ㄷ은 맞지만 ㄱ의 지연 모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ㄱ, ㄴ, ㄷ 모두 전조작기 특징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전조작기 특징만 고르면 ㄴ, ㄷ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지연 모방은 표상 능력과 연결되어 전조작기로 착각하기 쉽고, 대상영속성도 이후 사고의 기초라서 같은 단계로 묶기 쉽다. 그러나 피아제의 단계 분류에서는 둘 다 감각운동기 말의 성취로 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상놀이, 물활론, 자기중심성처럼 상징적 사고의 표현이 나오면 전조작기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반대로 대상영속성, 지연 모방처럼 눈앞에 없는 대상을 표상하는 기초 능력은 감각운동기 말로 분류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전조작기=가상놀이·물활론, 감각운동기 말=대상영속성·지연 모방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지각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옆 고속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탄 고속버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스트로보스코프 움직임(stroboscopic motion)
② 파이현상(phi phenomenon)
③ 유도된 움직임(induced motion)
④ 폰조착시(ponzo illusion)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제로 정지해 있는 대상이 주변 준거틀의 이동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유도된 움직임을 다른 겉보기 운동 개념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유도된 움직임은 배경이나 주변 틀이 움직일 때 정지한 대상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스트로보스코프 움직임은 정지된 장면들이 빠르게 연속 제시될 때 연속 운동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파이현상은 서로 떨어진 자극이 시간차를 두고 켜질 때 그 사이에 운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다.
폰조착시는 수렴선 같은 깊이 단서 때문에 같은 크기도 다르게 보이는 크기 착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스트로보스코프 움직임은 영화 필름처럼 정지된 장면의 연속 제시가 운동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 문항은 연속 장면 제시가 아니라 옆 버스의 실제 이동이 내 버스의 움직임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연속 제시된 정지 장면의 운동 지각"을 이 사례에 적용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주변 대상의 이동이 자기 대상의 운동처럼 지각되는 유도된 움직임"이다.
2번: X. 파이현상은 전광판 불빛처럼 분리된 자극이 번갈아 켜질 때 운동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이 사례는 불빛의 순차 점등이 아니라 하나의 정지한 버스와 옆 버스의 상대적 움직임 문제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분리된 자극의 연속 점등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며, 올바르게는 "이동하는 준거틀 때문에 정지한 대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다.
3번: O. 유도된 움직임은 움직이는 배경이나 주변 물체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실제로는 정지한 대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현상이다. 옆 고속버스가 먼저 출발하면 자신의 버스가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듯 느껴지는 사례가 대표적이므로 정답이다.
4번: X. 폰조착시는 원근 단서 때문에 같은 길이나 크기도 더 멀리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크기 착시이다. 이 문항은 크기 판단이 아니라 운동 지각의 오귀인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깊이 단서에 의한 크기 왜곡"을 운동 사례에 적용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준거틀의 이동 때문에 발생한 유도된 움직임"이다.

오답 포인트

겉보기 운동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1번과 2번으로 흔들리기 쉽지만, 두 개념은 모두 정지 자극의 시간적 배열이 핵심이다. 이 문항은 실제로 움직이는 옆 버스가 기준틀이 되어 자기 버스의 운동을 잘못 지각하는 경우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운동 지각 문항에서는 먼저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정지 자극의 연속 제시이면 스트로보스코프 움직임이나 파이현상이고, 움직이는 배경 때문에 정지 대상이 움직여 보이면 유도된 움직임이며, 크기나 길이 왜곡이면 착시 문제이다.

암기 포인트

유도된 움직임은 "움직이는 배경 때문에 정지한 대상이 움직여 보이는 현상"이고, 파이현상·스트로보스코프 움직임은 정지 자극의 연속이 운동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NoteBase

문 21. 단기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앳킨슨과 쉬프린(Atkinson & Shiffrin)의 연구에 의하면, 단기기억의 정보는 시연(rehearsal), 부호화(coding), 심상화(imaging) 등을 통해 장기기억으로 전이된다.
ㄴ. 단기기억에서 단어는 시각적으로 부호화되기보다는 청각적으로 부호화된다.
ㄷ. 일련의 목록을 회상하도록 했을 때 나타나는 계열위치효과 중 초두효과는 단기기억과 관련된다.
ㄹ. 단기기억에서 유지시연(maintenance rehearsal)보다 정교화시연(elaborative rehearsal)을 할 때 장기기억으로의 정보 전이 가능성이 더 크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기기억의 부호화 방식, 계열위치효과, 시연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앳킨슨과 쉬프린의 다중저장고 모형은 단기기억의 정보가 시연 같은 통제과정을 거쳐 장기기억으로 전이된다고 본다.
단기기억의 언어 정보는 시각 코드보다 청각 코드로 저장되는 경향이 강하다.
계열위치효과에서 초두효과는 앞부분 항목이 반복 시연되어 장기기억에 더 잘 저장되는 현상이고, 최신효과는 마지막 항목이 아직 단기기억에 남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지시연은 단순 반복이고, 정교화시연은 의미를 연결해 장기기억 전이를 높이는 시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다. 앳킨슨과 쉬프린은 단기기억 정보가 시연 같은 통제과정을 통해 장기기억으로 넘어간다고 보았다.
ㄴ도 옳다. 단기기억에서 단어는 시각적 형태보다 소리 정보로 더 자주 부호화된다.
다만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ㄹ'이다.

② X
ㄴ은 옳고 ㄹ도 옳다. 정교화시연은 정보의 의미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므로 유지시연보다 장기기억 전이에 유리하다.
다만 ㄱ이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ㄹ'이다.

③ X
ㄹ은 옳다. 그러나 ㄷ이 틀리다. 틀린 부분은 '초두효과는 단기기억과 관련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초두효과는 장기기억과 더 관련되고, 최신효과가 단기기억과 관련된다'이다.
또한 ㄱ이 빠져 있으므로 조합 자체도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ㄹ'이다.

④ O
ㄱ, ㄴ, ㄹ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옳다.
ㄱ은 단기기억 정보가 통제과정을 거쳐 장기기억으로 전이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ㄴ은 단기기억의 언어 정보가 주로 청각적으로 부호화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ㄹ은 유지시연보다 정교화시연이 장기기억 전이에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초두효과와 최신효과를 모두 단기기억으로 묶어 버리면 ㄷ을 옳게 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목록의 앞부분은 장기기억, 뒷부분은 단기기억이라는 계열위치효과의 구분을 흐리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기기억 문제는 먼저 '언어 정보는 청각 부호화 우세', '초두효과는 장기기억, 최신효과는 단기기억',
'정교화시연이 장기기억 전이에 더 유리'라는 세 기준으로 선지를 나누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단기기억은 소리로, 최신효과는 단기로, 초두효과와 정교화시연은 장기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22. DSM-5에 제시된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②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③ 공황장애(panic disorder)
④ 질병불안장애(illness anxiety disorder)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DSM-5에서 불안장애에 포함되는 진단명과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에 포함되는 진단명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범불안장애는 여러 생활영역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지속되는 장애로 DSM-5 불안장애에 포함된다.
사회불안장애는 타인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저한 두려움이 핵심인 장애로 DSM-5 불안장애에 포함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공황발작이 반복되고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 염려가 뒤따르는 장애로 DSM-5 불안장애에 포함된다.
질병불안장애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것이라는 집착적 염려가 중심이며 DSM-5에서는 불안장애가 아니라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에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범불안장애는 DSM-5 불안장애에 포함되므로 '불안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틀린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불안장애에 해당한다.
2번 X. 사회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평가 불안을 핵심으로 하는 DSM-5 불안장애이다. 틀린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불안장애에 해당한다.
3번 X. 공황장애는 반복되는 공황발작과 그에 대한 지속적 염려를 특징으로 하는 DSM-5 불안장애이다. 틀린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불안장애에 해당한다.
4번 O. 질병불안장애는 이름에 불안이 들어가지만 DSM-5 분류상 불안장애가 아니라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에 속한다. 따라서 불안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된다.

오답 포인트

질병불안장애는 불안이 매우 두드러져 불안장애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DSM-5에서는 증상명에 들어 있는 정서어보다 공식 분류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진단명에 들어 있는 단어보다 DSM-5의 상위 분류군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는 불안장애군이고, 질병불안장애는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군이라는 구분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질병불안장애는 불안이 핵심처럼 보여도 DSM-5 분류는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이며,
범불안장애·사회불안장애·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이다.

NoteBase

문 23. 체화인지(embodied cognition)에 해당하는 사례는?

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② 단거리 육상선수는 수행을 증진시킨다고 믿는 약물을 투여받았을 때 평소보다 더 빨리 뛴다.

③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손이 떨리는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④ 찬 커피 컵보다는 따뜻한 커피 컵을 손에 들고 있는 면접관이 면접 대상자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체 상태나 감각 경험이 판단과 인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체화인지의 사례를 고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체화인지는 몸의 감각, 자세, 움직임, 온도 같은 신체 경험이 사고와 판단에 스며드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문항에서는 단순한 정서 반응이나 생리 반응이 아니라 신체 경험이 사회적 판단을 바꾸는 사례인지를 가려야 한다.

핵심 개념

체화인지는 인지가 몸과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상태와 감각 경험에 의해 구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다.
적용 요건은 몸의 상태나 감각 단서가 기억, 판단, 평가, 의사결정 같은 인지 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신체 경험이 단순한 증상이나 수행 변화에 그치는지, 아니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바꾸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은 몸의 감각 단서가 추상적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은 정서 상태와 관련된 정신운동 지연의 예이다. 이는 우울이 행동량에 영향을 준 것이지, 신체 감각이 인지적 판단을 형성한 사례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체화인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우울과 관련된 운동성 저하의 사례이다.
② X: 수행을 증진시킨다고 믿는 약을 먹고 더 빨리 뛰는 것은 기대와 믿음이 수행을 바꾼 플라세보 효과의 사례이다. 핵심은 신체 감각 단서가 아니라 기대효과이다. 틀린 표현은 체화인지 사례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기대효과 또는 플라세보 효과의 사례이다.
③ X: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이 손이 떨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따른 생리적 각성 반응이다. 이는 정서적 충격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지, 신체 경험이 판단을 바꾼 사례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체화인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스트레스에 따른 생리 반응의 사례이다.
④ O: 따뜻한 커피 컵을 들고 있는 면접관이 면접 대상자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체적 온기 경험이 사회적 인상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이다. 온도라는 감각 경험이 성격 평가라는 추상적 인지에 연결되므로 체화인지의 전형적 예이다.

오답 포인트

우울, 플라세보, 스트레스 반응처럼 몸이나 수행이 변하는 장면만 보고 모두 체화인지로 묶기 쉽다. 그러나 체화인지는 몸의 상태가 인지적 판단 자체를 바꾸는 경우여야 한다. ④의 핵심 표현은 따뜻한 컵과 따뜻한 사람 평가의 연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에서 먼저 몸의 상태나 감각 단서가 무엇인지 찾고, 그 단서가 단순한 행동 변화나 생리 반응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사람·사물·상황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바꾸는지 구분한다. 후자이면 체화인지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체화인지 = 몸의 감각이 생각과 판단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NoteBase

문 24.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 중 마음챙김에 기반한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맥락과 상황을 강조한다.

② 현재의 경험을 수용적으로 자각하여 알아차리는 것을 추구한다.

③ 인지의 기능보다 내용을 중시한다.

④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와 수용전념치료(ACT)를 포함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 중 마음챙김 기반 접근이 사고의 내용 자체보다 사고가 놓인 맥락과 기능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현재 순간의 생각, 감정, 신체감각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접근이다.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는 증상을 일으키는 생각의 내용만 논박하기보다, 그 생각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그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 ACT와 DBT는 이러한 흐름에 속하는 대표적 접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맥락과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특징이다. 같은 생각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② O
현재의 경험을 수용적으로 자각하여 알아차리는 태도는 마음챙김의 핵심 정의에 해당한다. 현재 순간의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접근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인지의 기능보다 내용을 중시한다'는 표현이다. 마음챙김 기반 치료와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는 사고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데보다, 그 사고가 현재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는지를 더 중시한다. 올바르게는 '인지의 내용보다 기능과 맥락을 중시한다'이다.

④ O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와 수용전념치료(ACT)는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에 포함되는 대표적 접근이다. 둘 다 수용과 마음챙김의 요소를 포함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전통적 인지치료는 왜곡된 사고의 내용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는 사고의 내용보다 기능과 맥락을 본다. 이 차이를 뒤집으면 ③과 같은 오답에 걸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마음챙김, ACT, DBT가 보이면 현재 경험의 수용적 자각, 맥락, 기능, 가치지향 행동을 먼저 연결하면 된다. 반대로 사고 내용의 진위 논박이나 수정이 전면에 나오면 전통적 인지치료의 특징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제3세대는 내용 수정보다 맥락과 기능을 보고, 마음챙김은 현재 경험의 수용적 알아차림을 본다.

NoteBase

문 25. 시글러(Siegler)의 전략 선택 모델(model of strategy cho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 처리 관점의 인지 발달 모형이다.

② 피아제(Piaget)의 단계이론을 계승한다.

③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이라는 진화론적 개념을 적용한다.

④ 중복파장이론(overlapping waves theory)을 제안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글러의 전략 선택 모형과 중복파장이론의 핵심 관점을 피아제의 단계이론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시글러: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아동이 여러 문제 해결 전략을 함께 지니고, 상황과 경험에 따라 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다고 본다.
피아제: 인지 발달을 질적으로 다른 단계의 연속으로 설명한다.
중복파장이론: 한 전략이 완전히 사라진 뒤 다음 전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략이 겹쳐 존재하면서 사용 빈도가 달라진다고 본다.
자연 선택 비유: 더 효율적인 전략이 반복 경험 속에서 더 자주 선택되고 덜 효율적인 전략은 줄어든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보처리 관점의 인지 발달 모형이라는 설명은 맞다. 시글러는 아동의 사고를 단계보다 전략 선택과 변화 과정으로 설명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피아제의 단계이론을 계승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시글러는 피아제식 단계 발달관을 그대로 잇지 않고, 여러 전략의 공존과 선택 변화를 강조하는 정보처리 접근을 제시한다.
③ O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론적 개념을 비유적으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맞다. 더 적응적인 전략이 선택되고 덜 효율적인 전략은 점차 덜 사용된다고 본다.
④ O 중복파장이론을 제안했다는 설명은 맞다. 동일한 과제에서도 여러 전략이 겹쳐 나타나며 발달에 따라 우세한 전략이 바뀐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피아제와 시글러를 모두 인지 발달 이론으로 묶어 두면 ②가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피아제는 단계의 질적 전환을, 시글러는 전략의 다양성과 선택 변화를 본다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글러가 나오면 '단계'보다 '여러 전략의 공존, 전략 선택, 사용 빈도 변화'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선지에 피아제식 단계 계승이 나오면 오답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시글러 = 전략 선택 = 중복파장 = 단계보다 전략 공존과 변화이다.

NoteBase